

영석고, 순수 교직원 기금으로 독서실 마련

논문연구동아리 소속 학생 11명 9편 논문 퍼내기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영석고등학교(교장 정총래)는 최근 동국관 4층에 아담한 독서실을 만들어 문을 열었다.

교직원들이 기금을 마련해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을 건립했다.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영석고등학교(교장 정총래)는 최근 동국관 4층에 아담한 독서실을 만들어 문을 열었다. 30석 규모의 독서실은 '가운누리'라는 순우리말 이름이 붙었다. '세상의 중심이 되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최신식 설비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웅만한 사설 독서실 수준을 능가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주로 방과 후 자기주도학습을 하고 있다.

이 9편의 논문을 퍼낸 것이다. 논문의 주제도 다양하고 수준도 상당히 높다. '스마트 그리드 주요 분야와 국내의 적용 사례에 대한 고찰', '항공기조사 고의 사고 유형 및 원인에 대한 분석', '일본의 차기 상륙함 이즈모급의 도입으로 인한 동아시아의 정세변화', '한국 지식 재산권 관리의 문제점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삼성전자 대 애플사건 중 심오)' 등 대학원생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박민영 지도교사가 지난 해 3월부터 9개월 동안 논문을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학생들에게 주제 잡기부터 자료검색, 연구, 논문작성까지 하나하나 가르쳤다. 학생들은 의정부과학도서관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전공서적을 뒤졌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컴퓨터를 눈이 아프도록 들여다보아야 했다. 이렇게 연구계획서가 나오고 선행연구 논문을 토대로 주제를 잡고 논문을 차례로 써나가기 시작했다. 토론을 통해 원고 수정을 거듭하며 논문을 완성해 갔다. 박민영 교수는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여름방학 기간 설문조사, 문헌연구, 교수프로그램 작성 등 연구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쏟을 수 있었다. 학생들의 논문은 실제 대학원생 논문과 같은 규격과 양식으로 완성됐고 발표회에서 교사,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로 부터 '교과생이 한 놀라운 연구결과물'이란 호평을 얻었다. 정총래 교장은 "논문을 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전공을 심층적으로 연구해보고 교육과정에 더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학습효과로 본인의 잠재력을 확인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 위해 '가운누리' 독서실 설립 9개월간 지도교사 도움으로 대학 수준 버금가는 논문 퍼내

이 독서실은 급식 조리원까지 동참한 순수 교직원들의 기금으로 만들어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원래 교직원 기금은 매년 장학금 수여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했으나 올해는 기금 일부를 독서실 설치에 기부했다.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학교에 부족한 독서실을 만들어 학습환경을 제공하자는 전 교직원들의 뜻을 모은 것이다. 정총래 교장은 "가운누리라는 이름처럼 이곳 배움터에서 자신의 꿈을 갈고 닦아 세상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석고등학교 학생들이 한해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로 대학 학위논문에 버금가는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논문연구동아리 소속 3학년생 11명

이어나는 기자

“장애인 인식개선·편의위해 사업 펼칠 것”

장애인전법단, 4월 1일 주요 사업계획 발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약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조계종 장애인전법단(단장 도륜)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불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간다. 장애인전법단은 4월 1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년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공연사업을 비롯해 시각장애인 음성도서 발간 및 배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찰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모색을 시도한다.



장애인전법단(단장 도륜)은 4월 1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년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장애인전법단장 도륜 스님은 "우선 4월 20일 35주년 장애인의 달을 맞아 붓다 콘서트를 열어 장애인 인식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법단은 4월 16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에서 좋은벗 풍경소리, BBS TV와 함께 '붓다콘서트'를 연다. 승가원 장애아동 밴드, 연화원 시각장애인 기타연주팀, 원심회 수화공연팀 등이 참여한 장애인들의 다양한 끼를 발산하는 적극적으로 활발한 공연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전법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도 발간한다. 음성으로 녹음한 <부모은중경>과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음성도서를 MP3파일, TAP으로 제작해서

4월 16일 붓다콘서트 개최 시각장애인 음성도서 발간·배포 장애인 접근성 위한 지침서 발간 "사찰들 장애인 위해 힘써달라"

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한다. 도륜 스님은 "현재까지 청각장애인들의 수화동영상 교리집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편행위품점자책을 발간해 배포했다"며 "음성도서는 일관성있게 꾸준히 녹음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조금 걸린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설명했다. 전법단은 사찰별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서 발간 작업도 실시한다. 도륜 스님은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워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사찰에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인 안내건이 사찰에 함께 등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휠체어를 타고 법당 출입을 가능케 하는 등 10여가지 장애유형에 맞춘 지침서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장애인전법단은 2013년 캄보디아, 2014년 대만에 이어 오는 10월 중 불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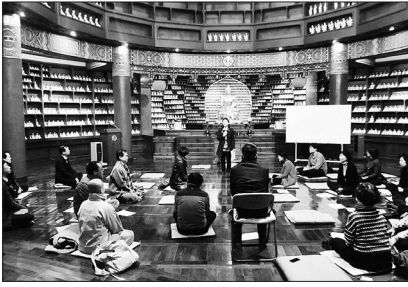
가인 라오스로 해외불교문화탐방을 기획·실시한다. 도륜 스님은 "일반인에 비해 해외불교문화탐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불자들을 모시고 해외불교문화탐방을 통해 불심을 다지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장애인전법단은 오는 4~5월중 양주 육지장사에서 경기지역 장애인불자 100여명을 초청해 '장애인 불자 템플스테이'를 열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륜 스님을 비롯해 승가원장 동준 스님, 광림사 연화원 주지 해성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 등이 참석했다. 송묵 스님은 "우리나라 장애인은 3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불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형제,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데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며 "열악한 장애인 포교환경에서 장애인전법단 및 포교사들이 눈물겨운 포교를 하고 있다. 장애인 포교를 위해서 재정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대웅전 양 옆으로 난 쪽문에 있는 보름 30cm에서 25cm로만 낮춰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다. 앞으로는 불교계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써서 사찰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륜 스님도 "각 지역사찰에서 장애인단체들이 법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동국대 국제선센터 4월 강좌 개강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영어와 간화선 법회

4월 봄을 맞아 동국대 국제선센터가 수행과 관련한 다양한 강좌를 준비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원장 수불)는 매주 토요일 영어법회와 간화선 법회를 개최한다. 4월 영어법회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불교에 대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간화선 법회는 '마음공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4월 영어법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일 원보 스님의 '사무량심 수행' △11일 선운사 사찰 기행 △18일 서울대 스미스교수의 '베다와 우파니샤드-인도 종교 철학의 근원' △25일 린 에머슨의 '우주와 마음'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오후 4시에 열리는 간화선법회는 △4일 황수경 교수의 '간화선과 마음치유-내 마음은 금부처' △11일 선운사 답사 △18일 박규리 교수의 '마조록' △25



황수경 교수가 토요일 간화선 법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일 김호규 교수의 선과 문답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제선센터는 선원장 수불 스님의 특강도 개최한다. 수불 스님은 4월 21일 오후 5시 국제선센터 법당에서 '진정한 행복'을 주제로 법문한다. 이밖에 국제선센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6시 30분까지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목요참선을 열고 있다. (02)2260-3891 이어나는 기자

세첸코리아, 사카 티진 초청법회

5월 8~10일 대중법문·수행 프로그램 마련

세첸코리아(대표 용수)는 사카파의 법왕인 사카 티진(사진)을 초청해 법회를 연다. 세첸코리아는 5월 8일 오후 6시 동국대 대강당에서 대중법문 '자비로운 여정'을 시작으로, 5월 9~10일에는 탄허기법박물관에서 '관세음보살 밀교 수행 전승과 관정'을 주제로 직접 수행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사카파의 법왕인 사카 티진 존자는 티베트 불교 사카종의 41대 종정으로 달라이라마 존자 다음으로 티베트 불교의 큰 스승이다. 1945년에 태어난 스님은 5세 때부터 대승과 금강승 불교의 다양한 가르침을 배웠고, 14세 어린 나이에 사카종 종정이 됐다. 이후 15세가 되던 1959년 티베트 정치적 상황으로 인도로 망명해 인도 데라둔에 사카 사원을 세웠으며, 인도와 네팔의 사원과 강원 무문관을 비롯 전 세계에



많은 신학생을 일으켜 세웠다.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은 "밀교 수행자의 양'으로 알려진 사카 티진 스님은 깊은 깨우침과 한없는 자비심으로 티베트 4대 종파 스님들과 불자들로부터 존경받고 계신 분"이라며 "5월 9~10일 열리는 행사에서 사카 티진 존자님은 티베트의 마하씨다(대성취자) 탕통겔보게서 관세음보살을 직접 친견하고 받아 만든 사다나 수행을 전수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http://shechenkorea.org) 이어나는 기자

제1기 불교의식(범음범패) 학인모집

각단 불교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보경사 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교육과정	
기본과정 (3개월단기)	도량석, 중송, 향수해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중급과정1년 (범음, 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39위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법	천수바라, 도량계, 사다라니 작법, 법고 막바라
사물	북, 태징, 목탁, 요령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개강일시 : 2015년 5월 7일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3매
- 신청접수 및 접수처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3번지 보경사 중무소(숙식제공가능) ☎ 054)262-1117
- 강주스님 : 일관

☎ 대한불교 조계종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교직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4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4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4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